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2월 15일 (제103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걸럼

영적 치매

갓난이도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면 울어댄다. 불편하다는 거다. 그런데 어른이 치매에 걸리면 대소변을 옷에 절이고도 모른다. 가끔 요양병원에 심방을 가면 치매에 걸린 자들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기억력과 판단력, 분별력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그런데 육적인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영적 치매다. 영적 치매에 걸린 교회, 주의 종,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신분을 잊었다. 그래서 권력이 나 재력 가진 자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영똥한 문화적인 지식과 학설, 신학을 잘도 외친다. 정치가 신앙보다 앞서기도 한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육적인 치매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치매는 전염이 된다. 그것도 전염이 아주 잘된다. 그래서 목사가 영적 치매에 걸리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다 치매에 걸린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신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23:15).

성경은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 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3:17~19). 치매에 안 걸리려면 늙었다고 손 놓고 뉘 놓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한다. 영적 치매 예방법도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자신을 진단해보라. 치매 증상이 있는가. 치매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된다. 영적 치매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정복된다. 자신을 점검해보자.

연합전선을 구축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복잡성이 이러한 협력의 구도를 어렵게 하는 게 다반사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저녁에 배를 통하여 협력의 문제에 있어 먼저 그 전제조건이 마음과 신앙이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6:14)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엢6:1~4)고 가르칩니다. ‘제사를 지내라’는 등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라고 하는데도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기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연합작전을 보세요. 12제자와 연합하셨습니다(마10:1). 70인의 제자와 연합하셨습니다(눅10:1).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면서 모든 믿는 자가 연합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막16:15~20). 다윗도 자신과 뜻이 맞는 37인의 용사와 연합(삼하23)하여 대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재택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출18).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 법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전

린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친구가 연합하니 지분을 뚫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마침내 친구를 중풍병에서 건졌습니다. 뜻을 모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가정, 죽은 기업, 죽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 혼자하려 합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합심기도의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은 모든 교역자, 장로, 직원 및 봉사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결과다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 귀, 입, 손, 발 등이 한 뇌의 명령에 따라 연합하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기관들이 각기 제고집대로 움직였다가는 그 사람은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동질성을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무슨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허구한 날 소리가 나서 시끄럽고 분쟁만 일어날 텐데요? 세상도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구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이 맞는 자들을 선별하

4:11~12).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가 연합하면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세계 16개국의 연합군이 달려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도 연합군의 결성에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지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자들이 연합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1명의 천재보다 둔재 10명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중풍병에 걸

위력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 나라에 평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구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신앙이 하나가 된 자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보지 말고 목표물을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반드시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6:16~34)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지체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기도원 호텔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돈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 예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예수 이름이 복음(福音),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그런데 요즘 교회는 예수는 온데간데없고, 학설과 문화적인 지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빛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길래 믿음의 선전들이 그 이름 때문에 능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이름을 지켰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4:18)고 했을까요?

존재 이유를 아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마1:21). 나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작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요17:11),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요5:43). 그래서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2:9~10).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14:26).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아들의 이름=성령의 이름=예수’라는

것입니다. 곧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 앓은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앓은뱅이가 그들에게 무언가 얻기를 구하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3:6)며 앓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앓은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시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장과 그의 문종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너희 이름으로 이 타내는 것이냐’고 묻자 베드로는 당당히 대답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행4:7~10). 제가 귀신을 쫓고,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앓은뱅이 등, 각종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너는 못 쫓아’ 그랬습니다. 순간 움찔했지만 저는 “그래, 나는 못 쫓아. 그러나 너 예수 알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 몸에서 나가!” 했더니 바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비를 멈췄고, 예수의 이름으로 태양을 구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4명이 나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환난의 바람은 교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까지 불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존재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저도 모든 것을 초개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마16:19). 예수 이름 앞에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 이름은 당좌수표와 같습니다. 당좌수표에 사인만 하면 은행에서 수표에 쓴 만큼 현금을 내어주듯,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명할 때 무엇이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재벌이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중에 있는 집을 발견하여 가보니 노인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네 집에서 하루 묵은 그 재벌은 당좌수표에 1억이라고 써서 노인에게 주며 은행에 가면 돈을 준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일년 쯤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은 재벌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주고간 당좌수표가 문풍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좌수표가 뭔지 모르니까 노인이 거기에 발뚱을 붙여 구멍을 막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어리 된 귀신을 쫓지 못해 민망한 얼굴로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쫓은 겁니까?’라고 묻자 예수님

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총알이 아무리 좋아도 총구를 매일 청소해놓지 않으면 총알이 나가지 않아 사나운 짐승 앞에서 도망가야 하고, 또는 그것에 물려 다치고 죽을 수밖에 없듯이, 능력의 예수 이름이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선수들이 매일 공을 휘두르고, 차는 것은 실력이 녹슬지 않기 위해

사명에 부도내는 자가 되지 말라

서입니다. 연습에 게으르면 1군에서 2군으로, 2군에서 3군으로 추방되고 맙니다. 그래서 1군에 있는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살전5:19).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야구나 축구선수가 매일 공을 치고 차듯이 매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만물을 명령하여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부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8~20)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도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눈으로 보여주며 그 이름을 전파합시다. 그러나 내가 불이 붙지 않으면 결단코 남에게 불을 붙일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과 영터리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복음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만약에 많은 물질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박한 성경지식이 필요하다면 일자무식의 노인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행4:12)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을 메시아의 자리에 올려놓는 원리적 이단들이 설쳐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B, B=C 고로 A=C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원숭이 XXX는 빨개 /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하늘...”. 원숭이 XXX가 결

국에 하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더라도 본질이 틀렸으면 가짜입니다. 명품은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갑니다. 그런데 야바위꾼들이나 사기꾼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꾀변을 늘어놓다 보니 자연히 말이 많아집니다. 성경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이나 재림예수, 그리고 보혜사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교주인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나니 그 부인이 자신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허황된 꾀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하느님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으며 완전한 구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떠한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여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상화평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벽 허물기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은 친밀한 삶의 모델이요, 전형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 장면인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친밀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관리했다는 것은 일하는 중에도 친밀함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인해 타락했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지성소 앞에 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친밀함을 방해하는 두꺼운 장벽이 존재함을 느낀다. 우리 인간이 가장 허물기 힘든 답은 보완이 철저한 철벽이 아니다. 수 세기에 걸쳐 40만 노동자의 땀 값으로 세워진 만리장성도 아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의 담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담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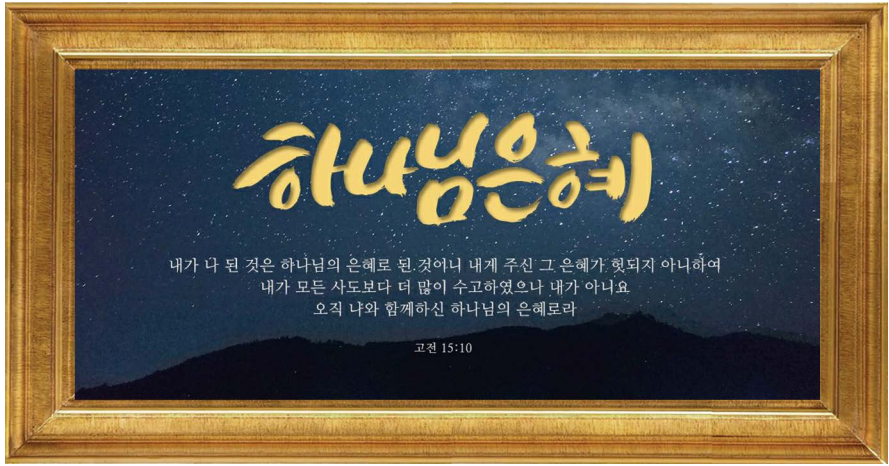
이다.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담, 적대의 담, 첨단기술의 담, 비교의 담, 거짓 친밀함의 담이 있다. 그러나 이런 담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성탄의 계절이다. 거리마다 캐럴이 흘러나오고 친구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숨겨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마음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파티로 채워지지 않는다. 돈을 펄펄 써서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담은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허물어지고 채워진다. 우리 속에 감춰진 자아의 담을 허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망설이지 말고 문을 열라. 모든 장벽이 무너지리라. “불찌여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하고자 한다면

내 장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내고야 마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영상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전자과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다들 수능을 대비해 공부하는데 나는 방송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송관련 공부를 했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수시로 방송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한 중고등부 교사라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니 자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고, 직분을 감당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마음먹은 대로 산업기능요원을 하게 되면서 집회, 수련회, 학생예배, 주일에 배 등 모두 참석할 수 있었다.

그 후 영상에 관해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국내 TOP3 안에 들어가는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공부를 마치고 회사에 다녔지만, 물질과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과 동시에 일이 꾸준히 들어와 호황이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하고픈 일을 나는 기다리며 끝까지 해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도와주고 후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인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달았다. “주님, 앞으로는 총회장 목사님을 도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은성



:: 삶이 있는 이야기 ::

진주를 만들라

진주를 품은 조개를 본 적이 있는가? 아름답지만 그 안에 흑독함이 서려 있다. 조개는 이물질이 몸속으로 침입하면 찌르는 듯한 괴로움을 떨기 위해 미끈한 물질을 분비해서 그것을 감싸고 또 감싼다. 그렇게 수년간의 고통을 견뎌내면 비로소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진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난 돌이 되어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이리저리 찢러댄다. 그럴 때면 찢린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이 돌을 거둬내주시라고 기도한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비난과 모욕, 그들이 던져대는 모난 돌과 날카로운 칼날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견디셨나요? 제발 이 돌들을 빼내주세요. 상처가 깊어서 너무도 아픕니다.”, “아니다! 그 모난 돌과 고통까지 다 감싸 안고 진주를 만들어라.” 내게 돌아온 응답은 당황스럽고 서운했지만, 힘든 고비마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그 돌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 정말 나의 진주가 된 것이다. 갈수록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 진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낀다. 그분의 방식은 모난

돌을 골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인내, 용서로서 모난 곳을 깎아내시고, 다듬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크리스천에게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이다. 우린 힘든 상황 속에서 회개와 변화를 거듭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아프지만 그 모난 돌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까지도 다듬어 아름답게 가꾸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견디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 고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해나가신다. 요셉도 ‘고난 겪는 의인’이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가 되어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창 41:52). 믿음의 선전들은 다 그렇게 고난 중에 진주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난 돌을 맡기시면 감사함으로 받아 선으로 감당해내자.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진주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 이호은 사모

사막에 샘이 넘치면

최근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사고가 늘어났습니다. 지역응급 의료센터에서 센터장을 지내시는 한 지인 분도, 요즘 응급실에 자살 시도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마음 아파하시더군요. 이런 소식 앞에 무책임한 정치권을 나무라거나 자살한 사람들이 나약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나 복음을 전해줄 사람만 있었어도 그들이 자살까진 안 했을 텐데...’ 하는 미안함과,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진심으로 위로할 자, 복음을 전할 자를 놓치면 안 될 텐데’ 하는 고민입니다. 이는 이 세상이 전부 아니며,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아는 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고뇌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진정한 위로’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절망하거나, 예수 안에서도 악한 영들에게 속아 ‘내 삶의 가치’를 잠시 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막은 매우 척박해 보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자랄 것 같지 않고 밟는 것조차 불편한 땅이지요. 그런데 한 지질학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막의 지질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막의 모래성분 자체는 매우 비옥했던 것이지요. 일조량도 풍부한 지역이니 물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사막은 오히려 생명의 땅이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근처에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 좋은 열매를 맺는 농장들이 가득 세워졌고,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는 땀에서 끌어온 물로 고급 목화와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척박하고 불품없이 보이는 내 삶, 내 터전,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만 가득 부어진다면 누구보다 아름답고, 값진 열매들을 만들어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탕발림이나 기계적인 위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로 제 삶이 그랬고, 지금 저와 함께 신앙생활

을 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척박했던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채움으로 순식간에 옥토가 되는 기적이자 하나님의 상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무 소중하셔서 당신을 얻고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당신은 아직 생수를 만나지 못한 옥토일 뿐, 쓸모 없는 사막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향해 당당히 외치십시오.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나를 만나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당신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인명 집사

:: From Internet ::

정신 차려라

한 젊은이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를 자세히 보니 어딘가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느라 사냥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각이 뛰어난 뱀도 독수리가 노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온통 정신이 거기에 쏠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무당벌레는 진딧물에 정신이 팔려 개구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젊은이는 이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활을 내려놓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세상에 정신이 팔려,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느라, 명예를 얻는 것에 정신이 팔려 누군가 나

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신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죽인 마귀는 이성에서 정신이 팔린 다윗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9)고 경고합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 끝까지 잘 갑시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 고혈압에 좋은 약초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 정상보다 높은 혈압을 말합니다. 90% 정도는 원인이 불명확한 본태성 고혈압에 속하며, 대다수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이상 증세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증세가 계속되면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혈압에 위험인자로는 유전, 음주, 흡연, 고령, 운동부족,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있으며, 혈압이 장기적으로 높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심장발작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생활습관 개선의 측면에서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를 늘리고 유제품이나 지방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3~5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좋으며 음주도 1일 1~2

잔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셀러리, 고구마, 감자, 냉이, 콩, 밤 등은 고혈압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민간 약초로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나 뽕나무 껍질인 상백피가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커서 중풍 예방약으로 사용됩니다. 상백피 20g을 물 300ml로 끓여 반으로 줄인 후 하루에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호박씨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침착을 막아주어 고혈압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조구등이라는 약초 역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하루에 20g씩 10분 이내로 끓여서 여러 번 나누어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완치방법이 없기에 장기간 또는 평생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며 가능하다면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으로는 이노제, 칼슘채널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

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혈관 확장제 등이 사용됩니다.

고혈압에 좋은 혈자리로는 태충, 현종, 족삼리, 수삼리, 곡지, 함곡혈과 같은 혈자리들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구 치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뛰어난 불펜 끝으로 매일 꾸준히 자극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풍통성산, 황련해독탕, 도핵승기탕, 조등산과 같은 한방 처방 등이 활용되며 희침이라는 약초 역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적인 약초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처방이나 약초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찰을 토대로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자신 스스로 건강하게 잘 지켜야 하는데, 고혈압과 같은 중요한 위험 사인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이전과는 다른 습관과 태도와 함께 적절한 치료들이 병행되어야 더 큰 문제들을 막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알겠어, 해줄게(Yes)”, “그건 안 돼(No)”, “기다려보렴(Wait)”. 기도가 힘들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인지 알기까지 또 다른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엄청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Yes를 금방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 매번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금방 No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 보통 안 돼도 그만인 상황이거나 나의 기대감이 낮은 것이기에 조금 아쉽기만 할 뿐이다. 다만 Wait란 응답은 응답 자체도 기다려야 하지만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도 기다려야 함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럴 때 좋은 기다림의 태도 중 한 가지는 그 기도를 메모해놓는 것이다. 훗날 그 기도 메모를 다시 보게 될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클 수 없다. 오랜 기도를 들어주셨든 안 들어주셨든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메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세웠던 돌들처럼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된다.

지금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한번 휴대폰 메모 앱이라도 써내려가 보면 어떨까.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어느 날 문득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 삶의 연대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간 기적과 사랑의 연대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케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케가 요단을 건넌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수4:6~7).

박찬영 집사

